

국회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대선정국 강타

與 원내 지도부 사퇴...박근혜 '이미지' 손상 野 "제식구 감싸기" 대대적 對與 공세 예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그 후폭풍이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면서 상대적으로 여당에 대한 비판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전격 총사퇴한 가운데 민주당 통합당 등 야권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새누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며 대대적인 대(對)與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박근혜 경선 캠프는 현재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상당히 당혹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권은 파상 공세=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대선 가도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는 야권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날 야권은 새누리당과 박 전 비대위원장에 게 파상공세를 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떠들던 새누리당은 개회를 40분

간 지연하면서 사전 의총을 통해 작전을 짜고 국민을 배신했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정당, 진정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을 박 전 위원장에게 돌렸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박 의원의 밝혀온 원칙과 소신의 정치는 정 의원에 대한 표결로 바다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지만 부대변인도 논

평에서 "스스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새누리당이 막상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어떤 원칙도, 어떤 명분도 없었다. 시작부터 불성사나운 방탄국회가 부끄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퇴 결정 역시 일련의 시나리오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김한길 최고위원 등이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가 대표를 하는 동안 검찰의 정치공작은 아주 분명히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안 산적 주변 만류...민주 전남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도시사직을 유지한 채 민주당 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박 지사측에 따르면 박 지사가 도시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당내 후보경선에 나서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박 지사는 최근 "지사직 유지 여부와 관련해 사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사는 그동안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대선출마의 징검다리 허송사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사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게 일어난데다 여수엑스포와 F1대회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주변에서도 지사직 사퇴를 만류하는 의견이 많아 현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컷오프 전인 이달 말까지는 지사직 사퇴를 유보하고 나서 경선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상 공직 사퇴시한은 선거일 90일 이전인 9월 20일까지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통합 전남도당 주관으로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



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성곤, 주승용, 배기운, 유윤근, 이나연, 김승남, 황주홍, 김영록, 이운석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해 도정 발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정 현안인 여수세계박람회, F1대회,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3대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미래 전남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당면 현안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새누리 경선 김문수·김태호 합류

여 대권경쟁 5파전...김태호 "밝은 정치 세대교체" 출사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태호 의원이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이들의 가세로 여당 대권경쟁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을 포함 5파전 구도로 형성됐다.

김태호 의원은 11일 "밝은 정치의 세대교체를 선언하며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아이 키우는 부모가 분노하지 않는 나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꿈이 있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2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경선참여 기자회견을 열고 대권도전을 선언한다. 그간 김 지사는 정몽준·이재오 의원과 함께 이른바 비비빅 3인방으로 불리며 박 전 위원장과 당 지도부에 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경선불참의 배수진을 쳐왔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경선 흥행 등을 고려해 김 지사의 참여를 줄곧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도 김 지사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장 김 지사는 자신의 식

언(食言)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다시 말해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명분으로 들며 자신의 입장을 180도 바꾼 데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다.

여권 내 별다른 세력이 없는 김 지사가 경선에서 박 전 위원장을 위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쟁력을 보여줄지 의문시하는 시각이 많다. 여권에선 결국 당의 주류를 형성한 친박계의 의중이 경선구도와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손학규 15일 전남에서 '북콘서트'

'저녁이 있는 삶' 3000여명 참석 민심잡기

민주당 통합당 대권후보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전남대 체육관에서 '저녁이 있는 삶-손학규의 민생경제론' 북콘서트를 갖는다.

이번 북콘서트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고문은 북콘서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진보적 자유주의와 공동체 시장경제, 경제

민주화, 사람 중심의 복지, 진보적 성장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또 손 고문의 후원회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형규 목사 등이 서평에 나서고 민중가요 1세대인 박치음 순천대 교수가 손 고문에게 헌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열창한다.

손 고문은 북콘서트에 앞서 14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잡기'에 나선 예정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통합진보 16일 의총서 이석기·김재연 제명안 처리

통합진보당은 16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1일 "16일 의총에서 두 의원의 제명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뜻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어떻게 처리한다기보다는 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열창한다.

손 고문은 북콘서트에 앞서 14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잡기'에 나선 예정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서 국민적 피로감이 높은 상황인 만큼 어떻게든 이번 사안을 조속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두 의원의 제명안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 의원 13명 중 과반인 7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두 신·구당권과는 두 의원의 제명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로, 당 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민주-검찰 기싸움

검, 박지원 대표 저축은행 로비 의혹 수사 공식화
민주 "이상득 비리 물타기 시도" 강력대응 천명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민주당 통합당과 검찰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검찰이 저축은행 로비 수사와 관련,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민주당의 공세 수위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리를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알복하겠다",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는 표현까지 동원

해가며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검찰의 공작'이라며 역공도 폈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 10일 의원워크숍에서 검찰이 자신의 친구에게 '이해찬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터무니 없는 부분이 많다"며 "요즘 세상에 누가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물타기 수사에 나서겠느냐"고 반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족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택1

150여가지의 족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족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경매투자

- ▶실전경매 배우실 분
- ▶교육 / 입장비등 550만원
- ▶특수물건만 취급
- ▶배우면서 투자가능

투자자모집

- ▶낙찰받은 경 / 공매 물건
- ▶근저당설정 / 가등기로 보장
- ▶년10~30% 수익률
- ▶기간 : 1년정도

주 |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